

너더리 유래

용화동 한 마을을 옛날 판교리(板橋里)라 칭하였다.
그 유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 앞에는 큰 개울이 있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물난리에 온통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의논을 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좋은 방법은 생각내지 못했다. 결말을 맺지 못한 사또는 각자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이 떠오르면 알리라고 하면서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마을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예쁘고 마음씨 착한 꽃분이가 살았다. 아버지께서는 장님이라 일도 할 수 없었다. 10살 조금 넘은 꽃분이는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샅바느질도 하고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했다. 집주인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기색을 짓지 않고 일도 잘했다.

하루는 잔치 집에 갔다가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산길에 접어드니 더욱 어둡고 짐승들도 갖가지 소리를 내며 울어대니 꽃분이의 마음은 무서움이 가득해 덜덜 떨면서 산길을 재촉해 걸었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갈수록 험했다. 한참을 걷다보니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그 집에서 꽃분이 또래의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니 꽃분이를 맞았다. “낭자의 아버님은 장님이시지요 ?”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눈을 뜨는 방법을 알려 드릴테니 잘 사용하라고 하면서 파란 주머니를 주며 아버지의 눈에 대고 두 번 두들기라고 했다 한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는 앞으로 닥칠 물난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준다며 개울 중앙에다 다리를 놓을 때 돌을 사용하지 말고 널빤지로 다리를 만들면 물난리가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고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꽃분이는 정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꿈인가 하고 손을 보니 파란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집에 돌아온 꽃분이는 아버지 눈에 대고 두 번 두드렸더니 정말 눈이 떠졌던 것이다. 아버지는 눈을 떠 꽃분이도 밝은 세상도 볼 수 있었다. 물난리 방지책을 사또께 아뢰어 놓았더니 정말 그해 여름에 물난리가 없었다.

다음해도 그 다음해도 ...

꽃분이는 상금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널빤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널다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자료출처 : 온양아산마을사 제3권 96쪽(2002년 12월30 온양문화원)

너-더리 **【한자식표기:판교】**

용화리 동쪽에 있는 마을, 널쪽으로 다리를 놓음.

넬빤지다리 → 넬다리 → 너더리

1913년 이전의 舊행정구역			1914년 개편된 新행정구역		
온양군	서면	용정리(홍거리) 상화리(숯골) 하화리(온천리 일부) 환교리(너더리)	아산군	온양면	용화리 (용정리+상화리)